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25.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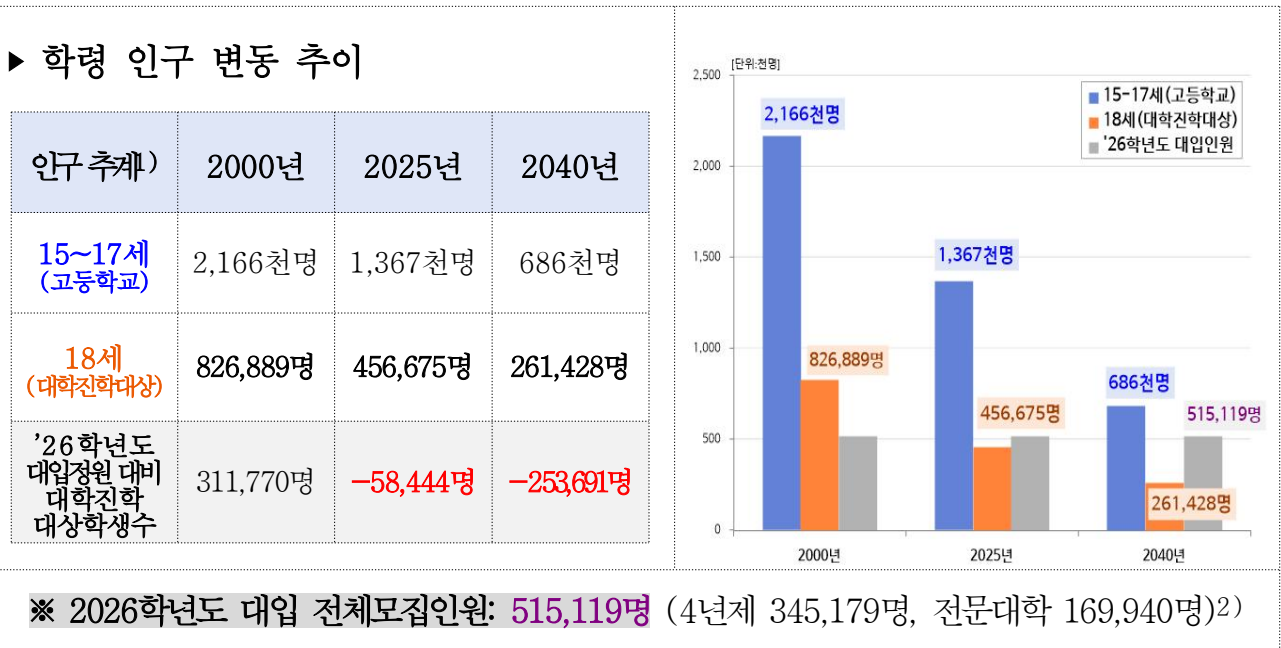
I. 배경 및 목적	1
II.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향	3
III.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4
1. 내신 평가 체제 개편	5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6
3. 대입전형 수·정시 통합 및 개선	7
IV. 고교교육 동반 개혁 방안	9
1.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9
2.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10
3. 고교 유형 단순화	11
V. 추가 제언	12
붙임 미래형 대입제도 추진 로드맵(안)	13

I. 배경 및 목적

- ◎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래 역량평가 요구에 대응하는 대입제도 개선 필요
- ◎ 학교 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 완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고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 ◎ 미래형 대입제도 조기 확정을 통한 안정적 교육혁신 준비 체계 구축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입제도의 기능 변화 필요

-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 ‘선발’ 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 ‘성장’ 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 필요
 - 학령인구 감소는 ‘누가 더 뛰어난가’ 의 경쟁이 아닌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 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 전환 요구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별 정원 충원을 하락이 구조화되면서, 대입제도는 고등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원 체제로 재정비 필요



1) KOSIS, 국가통계포털 추계인구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24.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 2024.5.

□ 새로운 인재상과 변화된 학습 성향을 반영한 평가 체제 혁신 필요성 대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는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및 소통 역량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재상 요구
 - ※ (OECD 교육 2030)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책임감 등) 강조
-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지식 중심의 5지 선다형 평가 방식에서 비판적 사고, 협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미래 역량 성장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학습자들의 디지털을 통해 학습하는 성향에 대응하여 학교 수업과 평가 역시 AI·데이터기록 기반의 학습과 성장의 과정을 살피는 교육시스템 구축

□ 고교교육과 대입 및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계 확립 필요

- 고교학점제의 선택·성장 중심 취지와 달리 2028 대입에서는 내신 상대평가(5등급)와 ‘통합형 과목 체계’ 도입을 수반한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따른 사교육 증가 및 고교 교육의 본질 훼손 우려
-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대입의 중요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 학교 교육은 ‘깊이 있는 학습’,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지향하나 수능은 지식 중심의 5지 선다 문항으로 진행되고, 학교 교육은 다원적 가치에 대한 존중,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강조하나 대입은 변별만을 위한 줄세우기에 기초함
- 대학입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최종 단계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을 연결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안정적 준비 체계 구축 필요

- 고교 내신의 논·서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 연계 등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과제로 이관된 상황임
 -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3.8월),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논의
-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공론화하여 조기에 확정하고, 학교의 평가 역량 강화, 평가의 신뢰도 확보 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대입제도 이행 기반 마련 필요

II.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향

- ◎ 교육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입 제도 개선
- ◎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을 위한 평가 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단계적 접근
- ◎ 수능의 영향 축소 및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대입 체계 구축으로 고교 교육혁신

□ 교육 구조의 통합적·단계적 접근을 통한 개편

- 교육 내적 구조(중등·고등교육의 변화)와 외적 구조(인구구조, 경제·사회구조, 과학기술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토대로 대입제도 설계
- 고교학점제 안착 및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평가제도·전형체계·고교체제의 연동성 강화**
- 2033학년도 대입과 2040학년도 대입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역량평가·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평가·대입 체제 안착 도모

□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평가 구현

- 단순한 입학 경쟁을 넘어, 고교-대학-사회가 연계된 성장 중심의 평가 생태계로 전환하여,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도모
- 단일 시험 중심 선발 체제에서 벗어나,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체제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설계
- 고교 교육과정-내신-학생부-대학입시 간 **정합성 회복**을 목표로 학교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하는 교육 체계 확립

<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 >

공정성 확보	고교 내신 성취 검증의 표준화 및 평가 신뢰도 강화
성장 중심 평가	결과 중심 변별에서 학업 진전과 탐구 과정을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
학교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입과 연계

Ⅲ.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비전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

목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시기	2028학년도 대입	2033학년도 대입	2040학년도 대입
적용	(18세) '25년 46만명 → '27년 45만명 적용 '25년 고1 학생	'25년 46만명 → '32년 43만명 적용 '25년 초5 학생	25년 46만명 → '39년 27만명 적용 '25년 5세
내신 평가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제안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30년 고1~ 적용) ·서논술형 평가 확대 ·평가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 시스템 구축	·내신 절대평가 정착 ·서논술형 평가 안착
수능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 ·5지 선다형 문항 중심 수능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서논술형 평가 도입 확대 ·절대평가 전환 ※ 수능의 대입 영향 축소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 체제 정착 ※ 수능 폐지
전형 구조	·수시/정시 분리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 폐지(정시 30~40%) 제안	·수시·정시 통합(11~12월)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정착
대학별 평가	·(서울 주요대학) 고교 유형별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전형 선발 확대 제안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 서논술형 평가 자율 활용

미래형 평가 체제 기반 조성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운영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고교 유형 단순화

고교 체제 개선을 통한 고교 서열 완화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중점학교 전환 **제안**

1

내신 평가 체제 개편

- ❖ 2033학년도 미래형 대입에 발맞춰 **고교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단계적 전환**하여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 확립
- ❖ 학습자 주도의 탐구형 수업 방식으로의 전환과 수업과 연계한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서논술형 평가 점진적 확대

□ 고교 내신 절대평가 단계적 전환

- 고교학점제를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성 견지 필요
- 고교학점제 취지 구현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33 대입 적용 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전환 필요
 - 우선 기 발표(23.12)된 **2028학년도 대입안**을 수정하여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는 즉각 폐기**하고, **2033학년도 대입(현 초5)부터는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면 전환** 추진
 - **2030학년도 고1부터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여, 학교가 2033학년도 대입까지 절대평가 전환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 제시

대입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2028(현행)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2028(개선안)	상대+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033(안)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25~’32) 절대평가의 내실있는 안착을 위해 학교 간, 평가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초·중·고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 시대가 요구하는 **다면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배움의 과정과 다양성**에 가치를 둔 **역량중심 평가** 결과를 연계 활용하는 대입전형 설계
- 특히 **학습자 주도의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학년도(현 초5 학생의 고교 입학시점) 이후** 각 교과 지필평가의 **50% 이상**으로 전환
 - ※ ’27학년도 30% → ’28학년도 40% → ’29학년도 50%
- **(‘25~’32)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보급**, 모든 고교교사 **서·논술형평가 연수 강화**, **전문 채점관 양성** 등 학교 교육을 통한 **서·논술형평가 활성화** 지원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2033학년도 대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도입

❖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과 연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수능의 대입 영향을 축소하고, 서논술형 문항의 단계적 확대 추진

- 대입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능은 대입 전형의 보조 요소로 활용하여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교 수업의 대입 연계 강화
- 현행 9등급 상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제외)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장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위한 소양 평가 성격 강화
- 기초 학업 성취 확인을 위한 선다형 문항과 함께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과정,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되, 학교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

※ '33학년도 30% → '35학년도 40% → '37학년도 50% 이상

- 5등급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수능 전문 채점단 양성·AI 보조 채점 알고리즘 고도화표준 루브릭 개발 병행 추진
- 2031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고2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서논술형 채점 체계, 평가 신뢰도, 학생 적응도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040학년도 대입 수능 폐지 및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고, 대입 주요 전형 자료로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함

❖ 대학은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 전형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및 구체적 활용 방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함

- 기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고,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대입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 마련
-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과정의 개편을 전제로, 대학에 따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
- 대학은 필요시 문제은행식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범교과 융합형 주제 중심 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 전형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대입전형 수·정시 통합 및 개선

- ❖ 수시·정시 이원 구조를 단일 통합형 전형 체제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정규 교육 과정 이수 이후 실시
- ❖ 2033학년도부터 대입의 기본 구조를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함
- ❖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개선, 지역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반 선발 전형 도입, 기회균형 전형 확대를 통한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 통합 강화
-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대입 전형 요소를 단순화하여 대학입시의 공정성·예측 가능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고교-대학의 선순환 체제를 정착

□ 수시·정시 통합 및 일정 조정

- 수시·정시 통합으로 학생·학부모의 이중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입 전형 일정은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완료 후(11월~12월) 실시**하여 학교 수업 정상화 유도
 - ※ 수능 및 대입 전형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탄력적인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시 개정 필요
-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와 연계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간 정합성과 선순환 구조 구축 기반 마련
- 대학에는 추가모집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부여해, 일정 조정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 유도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

- 수능의 실질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대입의 기본 구조 개편**
 - ※ 현 수능은 정시 뿐 아니라 수시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시 이월 인원예 다른 정시 규모 증가 등 대입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크게 갖고 있음

2033 전형 예시(안)	내용
학생부 플러스 수능형	학생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수능은 최소한의 보조 요소로 반영
학생부 중심형	학생부 교과 및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중심으로 평가
미래 역량형	학생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면접(혹은 프로젝트형 실기) 등을 종합 반영하여 평가

-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고교 교육-대입전형-대학 교육 간의 연계성을 회복하여 ‘선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함

□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 2028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고교 유형별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확대하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우수인재의 균형적 선발을 유도
 - *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제한
- 교육격차 완화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실현 가능한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지역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반 선발 전형을 도입하여 지역별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사회적 경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결한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등 대학교육의 상향 평준화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해 지역 인재의 거점 국립대 유인
 - 지역 기반의 고교-대학-지역 소재 기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定住)하도록 고교에 대학 연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대입 연계 모색

□ 대학의 전형 요소 활용의 자율성 보장

- 수도권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수능 위주 선발 비율 권고(예:서울 16개 대학 40%)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즉시 폐지하여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기반으로 하되, 수능·면접(실기) 등의 전형 요소를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조 자료로서 자율적으로 조합·운영
-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체계를 정착하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범교과 융합형 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전형의 보조자료로 자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별 면접 및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여부 모니터링 강화

IV. 고교교육 동반개혁 방안

1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 ❖ 평가 신뢰도 확보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설치
- ❖ 내신평가 모니터링과 컨설팅 확대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장치 마련

□ 평가관리 조직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혁신 추진의 전담조직으로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시도별 센터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총괄센터 구축)
 - (평가 거버넌스 재구조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평가 계획, 평가 실행, 채점, 결과 환류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
 - (평가 전문성 지원 체제) 센터 내 전문가 배치를 통해 절대평가(성취평가) 질 관리, 서논술형평가 확대 지원, 교원 평가 전문성 지원 등을 주도

□ **장기** 절대평가(성취평가) 주관성 보안을 위한 평가 공인체제 마련

- (단기) 단위학교 성취평가 운영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공통 점검기준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행
 - ※ 단위학교 내신평가 컨설팅 확대: ('25~'26)100교 → ('27) 200교 → ('28) 318교(전체)
- (중기) 서울형 평가기준 개발,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실화(26.상~)
- (장기) 성취평가 주관성 보안을 위한 외부 공인체제(메타평가시스템*) 구축
 - 학생별 성취수준에 대한 전문적 판단, 정성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평정 문제를 방지하고 학교 간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체제 구축
 - ※ 메타평가시스템: 성취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한 평가기준 객관화, 학교(평가자) 간 일관성 확보, 평가의 타당성 확보 시스템(외부 모니터링, 평가조정 등)

□ 단위학교 평가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평가지원단 양성 확대

- 평가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으로 학생평가지원단을 구성, 평가 개선 밀착 지원
 - ※ 영역: 성취평가/ 논술형평가/ 현장민원대응/ 탐구수업 전문가
 - ※ (~'26) 300명 → (~'27) 400명 → (~'28) 500명
- 성취평가 실행역량 강화, 서논술형평가 확대, 향후 정책 방향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집중 연수 운영

2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 ❖ 학습자 주도의 다양한 탐구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 ❖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을 통한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가속

□ 초·중·고 탐구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속

- 성장역량 중심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체제의 혁신 추진, 서울형 탐구수업 모델 단계적 도입
-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를 위해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 2030학년도(현 초5 고교 입학시점) 이후 서·논술형 평가 50%이상으로 전환
 ※ 교과별 지필 평가 기준:(’26) 25% 내외 시범 운영→(’27) 30%→(’28) 40%→(’29) 50%

□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동력 확보

- ’25년~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해 AI 평가지원시스템(채점보조-피드백) 개발
- ’26년~ AI활용 평가 실천학교 확대 운영을 통한 학교의 평가 실행 역량 강화
- ’27년~ 전체 학교 상용화로 일상적인 학교 수업 속에서 서·논술형 평가 실행 확산

<AI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및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추진>

구분	1단계 (’25년)	2단계 (’26)	3단계 (’27~)
	시범 운영(66교)	시범 운영 확대(120교)	전체 학교 확산
	AI 자동 채점시스템 개발 및 AI 학습용 채점데이터 구축	AI 자동 채점시스템 고도화 및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속	서비스 상용화 및 시스템 고도화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운영 · 논술형평가 연수 모듈 개발 · 논술형평가 현장지원단 구성 · 논술평가 가이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확대 ·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 · 채점자 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시스템 활용 전면 확대 ·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지속 ·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 확대 · 전문채점관 양성

□ 단위학교 서·논술형 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

- 교과별 서·논술형 평가 지원단 구성하고,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실습중심 연수 활성화, 출제 및 채점 컨설팅 지원, 이의제기 사례 발생 시 외부 자문 지원 등
- **장기** 논술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적 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 채점관 양성(’27~)

3 고교 유형 단순화

- ❖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일반고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화로의 전환
- ❖ 미래형 대입제도의 개편을 위한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 추진

□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고교 체제 개선 추진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외국어 및 국제계열 교과목을 다양하게 집중 편성하는 등 특화된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짐
-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고교 유형 단순화를 통한 고교서열화 완화 필요
- 학교가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아닌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 자율고·외고·국제고 중점학교 전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최초 지정·고시 당시의 학급당 모집 인원(35명) 및 학급수를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
 - ※ 자사고 학급당 모집 인원('10,'11년~) 35명 →('28년) 30명→ ('29년) 28명→('30년) 26명
 - ※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학생수는 일반고 감축 비율에 맞춰 감축 운영
- 자율고·외고·국제고를 학교 유형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중점과정 운영 일반고로 전환('30년 이후)하여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율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중점학교 전환(안)>

고교 체제(현)			고교 체제 개편(안)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일반고		시행령 제76조의3	일반고 (자율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 제안)		시행령 제76조의3
특성화고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		시행령 제91조
특목고 4계열	과학고	시행령 제90조	특목고 3계열	과학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안
	외고·국제고			예고·체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시행령 91조의 3,4	자율고	-	
	자율형 공립고				

V. 추가 제언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권고 폐지

- 수능 전형의 확대 이후 고교 및 대학의 학업 중단율이 높아졌고, 수능을 통한 N수생 증가 등으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됨
- 정시 중심의 입시 구조는 고등학교 학교 생활의 충실도 보다는 수능 점수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여, 교육 공공성과 학교 교육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킴
-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를 폐지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대입 제도를 통해 학생 성장과 역량 함양 중심의 학교 교육 구현

대입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서·논술형 절대평가) 조기 확정 필요

- 고교 내신 및 대입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을 조기 확정하여 학생·교사·학부모 및 교육 당국이 서·논술형 절대평가 내신 및 수능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실질적인 진로 연계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

- 중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여 고교와 연계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중1 자유학기→중 3 전환학기), 고 3학년 2학기에 진로 설계를 위한 탄력적인 진로 연계학기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 필요
- 진로·진학과 대입전형 상담, 사회 생활 안내와 적응,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운영하여, 3학년 2학기가 대학과 연계하여 온전하게 고교 교육과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 전과목 내신 절대평가는 오히려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책과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대학 서열화 하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평가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므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중장기적 대책 시행이 중요함
-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대학과 교육청, 교육전문가 및 시민사회, 노동계 등 범사회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

- 단편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해서 교사가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함께 적정한 교원 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붙임

미래형 대입제도 추진 로드맵(안)

- ❖ 고교 교육과정-내신 평가-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개혁 추진
- ❖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불안 확대 및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단계적인 “대입-고교교육 동반 정책 로드맵” 제시
- ❖ 고교교육-대학입시-대학교육 연계 및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

내신 평가 체제 개편

연도	'25. 下~	'26	'27	'28	'29
① 역량중심 교육과정 구현	(수업) 서울형 탐구수업	· 서울형 탐구수업 모델 개발 및 확산('26上. 개발~) · 서울형 평가기준 개발 및 적용('26上. 개발~)			
	(평가) 서·논술형 평가	선도학교 운영	30%	40%	50%이상
② 평가 역량 강화	AI 서·논술형평가지원시스템	시범적용 확대 (120교)	상용화(일반학교 확산)		
	평가지원단(전문가) 양성	300명	400명	500명	-
	서·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고교 교원 30%	고교 교원 50%(누적)	고교 교원 80%(누적)	고교 교원 100%(누적)
③ 절대평가 안착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니터링 지속 및 컨설팅 단계적 확대 ('26년 100교→'27년 200교(누적)→'28년 318교(전체))			
	평가 공인체제 구축	* 정책연구	시범적용	적용확산	일반화

대입제도 개편 및 고교 유형 단순화 추진

연도	'25. 下~	'26~'31	'32	'33~'38	'39
① 대입제도 개편	제안 ·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권고 폐지 · 서울 주요 대학 수시전형 개선	· AI 기반 채점 시스템 구축 · 서·논술형 문항 개발 · (31년) 모의평가	2033 대입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및 5단계 절대평가 ·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개편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2040 대입 · 수능 폐지 ·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제
	② 고교유형 단순화	법적 근거 마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30년, 고1 적용) 자율형고등학교,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일반고(중점학교)로 전환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도출